

경제자료

»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43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2000년대에 들어 남한내에서 북중 경제협력 확대 추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북중간의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북중무역 규모는 34억6,568만달러로 2000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투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8년도 중국의 대북 FDI 규모는 41.23백만달러로 전세계의 대북 FDI의 93.7%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최근 북한은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대풍그룹은 중국 투자자들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물론 그 실적이 전무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최근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닉슨센터(Nixon Center)의 Drew Thompson 연구원은 북한내 중국기업의 진출 현황을 조사·발표하였다. 보고서에는 북한에 138개 중국기업이 진출하여 협력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윤을 내기 어려운 투자 환경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의 대북투자 의도가 북한 및 한반도 관리의 측면이 강하다는 내용 등을 담아내었다.

본 자료는 Drew Thompson의 보고서 「침묵의 파트너: 북한내 중국의 합작기업(Silent Partners: Chinese Joint Ventures in North Korea)」의 요약본을 정리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북중간의 무역 및 투자 실태를 정리해 수록하였다.

정리: 이원경 연구원
(wklee@kdi.re.kr)

1. 침묵의 파트너: 북한내 중국의 합작투자 (Silent Partners: Chinese Joint Ventures in North Korea)

(Drew Thompson)

서론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로 여겨져왔다. 그동안 중국의 대북원조, 무역, 투자는 북한의 사회 안정과 경제적 생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북한의 경화 획득과 기술의 주요 원천이었다. 중국의 대북무역과 투자는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데 특히 중요한데, 이는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가 단절된다면 김정일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엘리트층의 충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합작투자는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주기도 하지만, 낙후된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북중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측면이 있다. 중국의 대북 금융투자는 중국의 전략적 이득 뿐만 아니라 남한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반면에, 북중간의 경제적 관계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도발에 대해 제재를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

중국의 대외적 관심과 북한

중국의 대북투자는 중국이 갖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관점과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역할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북관계는 '강대국' 이 되기 위한 주요한 노력이고 대북투자는 '세계진출' 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투자가 공산주의 이념이나 한반도에 대한 재패전략에 따라 정치적으로 주도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오히려 대북투자 및 대북무역은 중국의 국경지역과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주고, 북한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 합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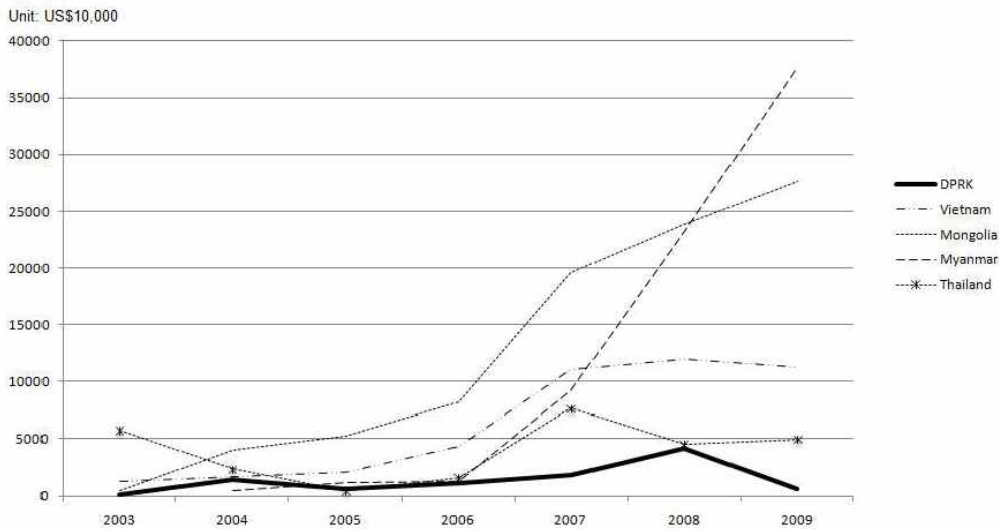
중국의 대북 투자 프로젝트는 중국의 인접국가에 대한 투자와 비교했을 때 규모도 작고, 성공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대북투자는 9,830만달러였지만, 대한국투자는 12억달러, 대태국투자는 2억7,300만달러, 대베트남투자는 4억3,700달러, 대미얀마투자는 7억2,980만달러, 대몽골투자는 8억9,070만달러였다. 중국 투자자들은 대북투자에 있어서 지대추구, 부족한 인프라, 억압적인 정치환경 등의 문제가 특히 대북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전하고 있다.

표 1 | 중국의 연도별 대북투자

(단위: 백만달러)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1.12	14.13	6.5	11.06	18.4	41.23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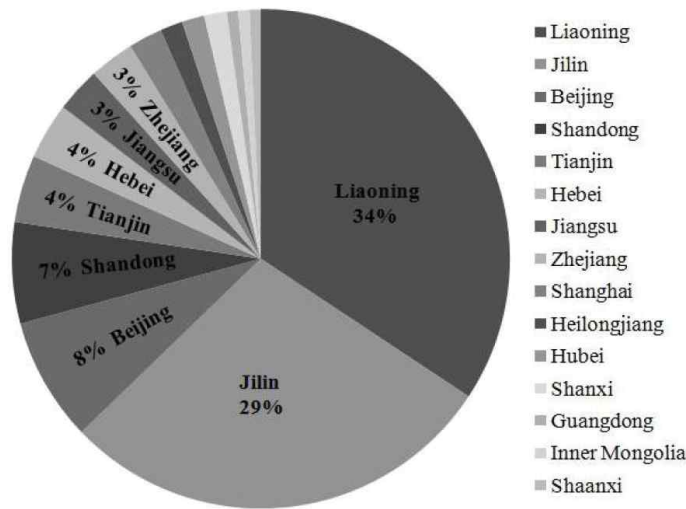
그림 1 | 2003~2009년 중국의 국가별 대외 FDI 흐름



중국의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대북투자 기업은 단지 두 개 기업뿐인데, 이 두 기업 모두 제철업체이다. 투자 기업 가운데는 난징판다(Nanjing Panda), 차이나 민메탈스(China Minmetals), 완샹(Wanxiang)과 같이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소규모 기업들도 있지만, 중국의 대북투자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또한 이들 대북투자자 중 대부분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국영기업이 아니라 개인회사 및 성, 주,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다. 합법적인 투자자라고 인식되는 138개 기업 중 4개의 기업만이 중앙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138개의 합작기업이 설립되었고, 이중 41%는 채취산업, 38%는 경공업, 13%는 서비스 그리고 8%는 중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형태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지정학적으로 북한에 접한 길림성과 요녕성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기업의 28%는 길림성에, 34%는 요녕성에 기반하고 있고 나머지는 베이징, 산둥, 상하이 등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길림성과 요녕성은 북한과의 국경 1,400km에 맞닿아 있고, 점점 해외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북한과의 인접성을 이용한 경제적 이득 획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지역에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약 100만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문화적 혜택을 얻고 있다.

그림 2 | 중국의 대북 투자 기업의 지역별 분포



북한은 중국이 제공한 경제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계획의 궁극적인 성공은 바로 북한의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출발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지 분석가들은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개혁·개방된 북한 시장으로 인해 북한 접경 지역이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길림성 연변시와 요녕성 단동시는 북중 국가간 무역을 촉진시키고, 북한 접경 지역에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중국의 동북지역이 장기간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좀 더 합리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북투자과 중국의 정책

일반적으로, 대북투자를 하고 있는 요녕성과 길림성의 중소기업들은 사업 성공을 위해 중국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중국과 북한사이에서 조용한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한반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 이들 회사는 그들의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를 바꿀 것이다. 사업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회사들처럼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들도 강경하게 대응하여 중국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그들의 투자가 중국전체의 투자규모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업과 지역차원에서의 발생손실은 클 수 있다. 또한 일부 중국의 투자자는 성이나 성 이하의 정부부처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투자의 손실은 지역정부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 접경한 북한 지역은 북한의 경제활동이 붕괴된다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중국 접경 북한 지역은 북한에 씌어진 국제적 오명 때문에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중국 동북지역은 베이징에서 원거리에 있을 지라도 다양한 관료적인 메커니즘과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위협의 상황이 발생하면 베이징도 동북지역의 이득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북투자과 무역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인 관점과 일치한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국가적인 이득은 안정적인 지역 안보 환경을 유지하고,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동북지역의 경제 발전을 증진시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중국은 무역, 원조, 투자와 같은 양자간 관계와 6자회담 같은 다자간 관계를 통해 경제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중국과 북한간의 견고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시키는 것은 중국의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것은 중국의 사업에 가져올 이득 때문만이 아니라, 무역과 투자는 체제 안정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북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중국의 관료들과 분

석가들은 만약 북한이 내부적인 안정성과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핵 무기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투자자는 북한정권의 체제 안정에 잠재적으로 간접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자와 지정학적 전략의 균형

‘상호 불신’은 북중 관계,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계를 특징 짓는 것이다. 북한은 무역, 원조, 투자를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채취산업, 특히 채굴부분에서 중국투자에 종속되어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우방국이 없고, 중국보다 큰 무역파트너나 투자국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북쪽에 인접한 중국과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전세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상당한 경험과 충분한 자본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당면하게 될 위험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덜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한과의 관계개선은 북한체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엄격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개혁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전수한다. 중국의 합작투자사들은 중국의 개혁 경험을 전달하고 북한을 대외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게 유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켜주면서 점차적인 개혁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는 또한 먼 미래에 합의된 남북통합의 가능성을 증진시켜 줄지도 모른다.

중국의 대북투자자는 중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치 수단의 폭을 좁히고 불분명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제재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도구일지라도,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재 적용이 불편하다. 중국의 대북투자자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중국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대북제재가 중국기업에 손실을 주고, 중국정부와 북한정부간에 존재하는 모든 신뢰를 약화시키며,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중국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투자자들이 이 지역의 미묘한 안보 균형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평가를 할 때, 중국의 대북투자자가 마찬가지로 극적이라고 표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외투자자는 중국을 변화시킨 것처럼 북한 엘리트와 노동자들을 점진적으로 변화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북지역 및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북한의 개방에 일정 역할을 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면 투자의 성공적인 물결은 북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환경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북한 스스로가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중국의 투자 증가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2. 최근 북중 경제협력 실태 및 사례

가. 무역 및 FDI 현황

- 2010년도 북중간의 무역액은 1998년 대비 약 8.5배 증가
 -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8년 51.1억달러 대비 약 2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대중국 수입액은 6배 증가

표 2 | 북중 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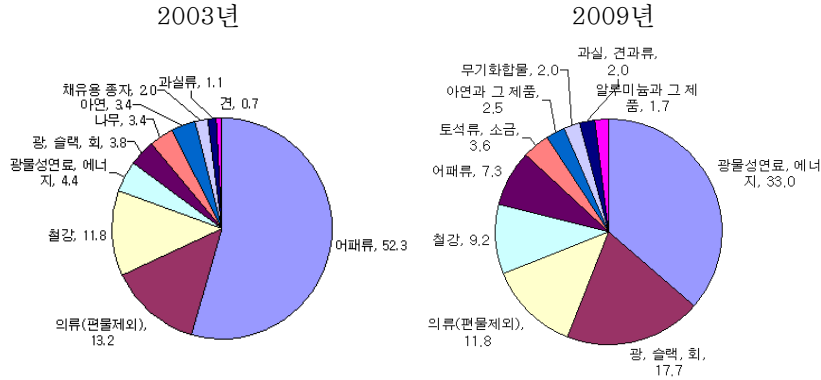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년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
1998	51.1	356.7
1999	41.7	328.6
2000	37.2	450.8
2001	166.8	570.7
2002	270.9	467.3
2003	395.5	628.0
2004	582.2	794.5
2005	496.5	1,084.7
2006	467.7	1,231.9
2007	581.5	1,392.5
2008	754.0	2,033.2
2009	500.6	1,209.6
2010	1,187.9	2,277.8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3년 당시 어패류 수출에 집중되던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이 2009년도에 광물성연료, 에너지 등으로 변화

그림 3 |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품의 비중 변화 추이(2003/2009년)



자료: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해당년도.

표 3 | 북한 FDI유입 중 중국의 비중

(단위: 백만달러,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FDI(해외→북한)	158	40	50	-105	67	44	2
FDI(중국→북한)	1.12	14.13	6.5	11.06	18.4	41.23	5.9
중국비중	0.7	35.3	13.0	-	27.5	93.7	-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중국 상무부, '중국상무연감 2010'.

표 4 | 중국의 대아시아 및 대남북한 FDI 현황

(단위: 백만달러,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시아(A)	1,505.03	3,013.99	4,484.17	7,663.25	16,593.15	43,547.50	40,407.59
북한(B)	1.12	14.13	6.50	11.06	18.40	41.23	5.86
(비중(B/A))	(0.07)	(0.47)	(0.14)	(0.14)	(0.11)	(0.09)	(0.01)
남한(C)	153.92	40.23	588.82	27.32	56.67	96.91	265.12
(비중(C/A))	(10.23)	(1.33)	(13.13)	(0.36)	(0.34)	(0.22)	(0.66)

자료: '중국상무연감', 2010.

나. 북중 주요 투자협력 실태¹⁾

1) 자원개발 분야

■ 중국의 대북투자의 대부분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

표 5 | 2004~2009년 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투자개발 및 채굴권 확보 현황

지역		광산	체결시기	종류	투자금액
함경북도	온성군	강안탄광	2005.7	갈탄	
	회령시	오룡광산	2006.5	철	3.16억위안 (543억원)
	무산군	무산광산	2006.11	철	1억위안 (172억원)
함경남도	덕성군	덕성광산	2004.3	철	1억달러 (1,165억원)
	장진군	장진광산	2004.5	몰리브덴	240만유로 (20억원)
	허천군	상농광산	2004.8	금, 동	
양강도	보천군	보천탄광	2006.9	금	2,000만위안 (344억원)
	해산시	해산청년광산	2008.11	동	4,400만위안 (756억원)
	갑산군	8월광산	2006.9	동	1,000만위안 (17억원)
	갑산군	문락평광산	2006.4	철	1억위안 (172억원)
평안북도	의주군	덕현광산	2007.3	철	6억위안 (1,032억원)
	구장군	룡등탄광	2005.10	무연탄	
	구장군	룡문탄광	2005.10	무연탄	
	의주군	덕현탄광	2007.3	철	
평안남도	신천군	신천탄광	2006.4	금, 은	
	순천시	2.8직동청년탄광	2005.4	무연탄	
	은산군	천성청년탄광	2005.4	무연탄	
	성천군	룡흥탄광	2007.9	몰리브덴	443만달러

1) 중국 정부와 성 차원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투자(선도구전망계획요강 관련 100개 중점건설대상 등) 등 북중간의 주요 투자협력 실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8월호 참조.

지역		광산	체결시기	종류	투자금액
					(51억원)
황해남도	응진군	응진광산	2008.6	철	3,000만유로 (516억원)
황해북도	은파군	은파광산	2006.3	연, 아연	3.5억위안 (602억원)
	수안군	수안광산	2007.1	금	

주: 투자금액이 확인된 프로젝트만 정리, 원화는 체결당시의 환율로 계산

자료: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재편집

- 국감보도자료(2009.10.23)
- 2009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문화일보」, 2009.10.8
- 윤병수·동애영,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3.26, p16.

2) SOC 분야

■ 자원개발 분야 다음으로 집중되는 투자사업이 북중간 항만, 도로, 철도의 연결과 북한내 각 시설의 개보수 사업

- 대부분 북중 국경을 연결하는 투자사업에 집중
- 이러한 인프라 구축사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동북 3성 진흥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계개발을 목적으로 진행

가) 항만 및 권역 투자

■ 나진항

- 2005년 9월 중국 훈춘시와 라선시간에 ‘도로·항만개발구 일체화’ 사업추진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면서 가시화
-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조중 우호 60주년’을 맞아 방북하여 북한과 ‘5개년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20억달러 상당의 경제원조와 투자에 합의
-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직후인 10월 7일 중국은 북한의 나진항 1호 부두의 2,3호

정박지를 보수, 확장하는데 2,000만위안을 투자하면서 4호 부두를 신축하여 10년간 독점 전용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나진에서 원정리까지 67km의 도로를 폭 9m의 4차선도로로 확장해 주기로 합의

- 중국은 2009년 6월 중국 요령성 대련창력경제무역유한공사의 계열회사인 훈춘창력해운물류유한공사와 북한의 나진 강성무역회사와 합영으로 나진항 1호 부두의 석탄운송을 위한 현대화 사업과 인근 비료 증개창고 8,100m²를 석탄창고로 개조하는 작업을 완료

■ 청진항

- 2010년 5월 중국의 연변하이화(延邊海華)무역공사가 청진항 3·4호 부두의 15년 사용권을 추가로 확보
- 청진항 항로를 운항할 연변 하이화(海華)무역공사는 이미 2,000만위안을 투자, 청진항에서 화물 선적용 대형 크레인과 투먼~청진을 운행할 200량의 화물열차 제작 추진

■ 단천항

-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010년 6월에는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수출 항인 단천항 개발(항만 보수)과 이용권 협상이 북한과 중국간에 마무리 된 것으로 파악

나) 특구 개발 및 기타 사업

■ 위화도 및 황금평 개발

- 북한은 단동과 접경한 압록강 섬인 위화도와 황금평을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의 2개 기업에 각각 100년 임대 형식으로 개발권을 부여하고²⁾ 중국은 황금평(11.45km²)에 5억달러, 위화도(12.2km²)에 3억달러를 각각 투자

2) 애초, 이 지역은 50년 기간으로 임대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중국의 임대기간 연장을 북한이 수용하여 100년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2010.2.23; '한국일보', 2010.10.28.

■ 백두산관광단지 개발

- 중국의 민영기업인 대련만달그룹, 중국범해그룹, 내몽골역리자원그룹, 요녕일방 그룹은 약 200억위안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30km², 건설용지 약 10km² 규모의 백두산관광단지를 개발하기로 북한과 합의하고 2009년 8월 28일 착공식을 진행

■ 압록강대교 건설

- 2009년 10월 4일 북한 김영일 내각 총리와 만나 단동의 랑터우항과 남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대교(中朝鴨綠江界河公路大桥)’ 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중 경제기술 합작 협정서를 체결
 - 2010년 2월 25일 「조선정부와 중국정부사이의 압록강 국경다리 공동건설과 관리에 관한 협정」이 단동에서 정식 체결
 - 건설비 10억위안(약 1,720억원)은 중국이 전액 부담

■ 기타 시설 투자

- 중국의 요화유리집단공사가 무상원조 형태로 진행된 남포의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 및 운영지원,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근대화, 북중합작 철도회사 발족
- 나진 국제교역단지 조성, 남포항 개발, 남포 보세구역 개발, 압록강변 발전소 공동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투자 프로젝트가 추진 중

표 6 | 중국의 대북 서비스분야 투자 현황

진출년도	관심회사	주요내용	비고
2004.6	조선울림운수 합영회사	중국 낙청성금괘속서비스유한공사와 북한의 선울림회사간의 국제여객버스운행(중국 온주 상인 투자)	합영
2005.4	절강성의 동양국호무역유한회사	조선철명무역회사와 절강상품판매시장(평양 제1백화점 3개층 총면적 15,000평방미터)의 공동운영	생활잡화와 의류 등 판매(심양 중육집단 투자방기후 진출)
2005.6	요령대성국제무역유한회사, 단동환구실업발전수출입유한회사 등 4개사	무역성 산하 중앙수출입물자교류총회사와 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장 공동운영	수입물자판매(100만달러 투자)

진출년도	관심회사	주요내용	비고
------	------	------	----

자료: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EU와 중국 기업의 대북진출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08년 가을호.

3) 제조업 등 기타 분야

- 제조업을 포함한 기타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은 자원 및 SOC 관련 투자에 비해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음.
- 2004년 중국 북경중합화학무역공사는 북한 상명무역총회사와 합작하여 어업생산제휴 프로젝트를 맺고 원양어선 총 18척에 대해 2009년까지 원산 근해에 대한 입어료의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
- 2005년 8월에는 대련해양어업집단, 주산화응원양어업공사, 주산보다구원양어업공사가 북한 삼태성무역회사와 합작하여 동해안 어업개발프로젝트를 맺고 5년간 원양어선 총 60척을 투입하는 사업 실시
- 2006년 5월 요령성 격림투자유한공사는 문악발전소³⁾ 건설을 위해 4,5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은 전력으로 상환하는 내용의 발전소 건설 사업도 추진

표 7 | 제조업 등 기타분야

설립년도	투자회사명	투자당사자	방식	생산품(특기사항)
2004.5	조선영초건재제품 합영회사	중국: 장춘영초과기책임유한공사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건재무역회사	합영 (50:50)	석면스레트 (돌숨지붕판)
2004.6	조선올림운수 합영회사	중국: 낙청성금괘속서비스유한공사 북한: 조선올림회사	합영	국제여객버스운행 <중국 온주 상인 투자>
2004.6	영광가구 합영 회사	중국: 길림성 중상무역대외수출입총회사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대외경제협조국	합영	각종 고급가구 <영광가구건재종합센터 개업: 2006. 6>
2005.10	평양전기기구 합영회사	중국: 베이징복성효정전자과학기술주식회사 북한: 카드식적산전력계조립공장	합영	카드식적산전력계
2005.10	평진자전거 합 영회사	중국: 천진디지털무역책임유한공사 북한: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영 (51:49)	자전거
2006.4	조선은풍 합영 회사	중국: 요령성 화풍목업주식유한회사 북한: 조선은파산무역회사	합영 (55:45)	사료첨가제 (북합영양첨가제)
2008.3	평양아명조명 합영회사	중국: 상해아명전등공장유한공사 북한: 평양조명기구공장	합영	컴팩트 등(절전형 등생산)
2008.4	평양백산연초 유한책임회사	중국: 길림성담배공업유한회사 북한: 조선연초수출입상사	합영 (51:49)	담배생산

주: 실제 조업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

3) 본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4.2만kw, 연발전량은 1억6천kw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립년도	투자회사명	투자당사자	방식	생산물(특기사항)
------	-------	-------	----	-----------

자료: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EU와 중국 기업의 대북진출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08년 가을호.